“길에 나앉을 판입니다”…자영업자들 한계 도달

카페·돌잔치·유흥업소 등 곳곳 반발…형평성 논란 여전
광주 등 지역 감염 우려 지속…방역지침 유지 여부 ‘촉각’

“한 달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으로 이제는 길에 나앉을 판입니다.”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이어진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카페·유흥업소·돌잔치 업체 등 일부 업종은 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이 기간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조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카페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했으나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영업시간 모두 포장·배달만 하도록 했다.

결혼식장의 경우는 당초 시설 면적 4㎡(1.2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으나, 전체 100명 미만으로 변경했다.

반면 돌잔치 행사는 사적모임으로 간주해 연말연시 방역기간에는 집합금지 시키고 있다.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다.

일부 업종들은 강력한 조치에 생계권을 위협받아 폐업 여부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가하면 유사한 업종 형태인데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페 업주 강모(33)씨는 “거리두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다시 연장한다면 당장 카페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브런치카페도 똑같은 카페인데, 왜 일반 카페는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 브런치 카페는 하는 지 의문이다. 밤 9시까지만 영업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돌잔치 업체 직원 김모(28)씨는 “돌잔치가 왜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돌잔치도 예식과 똑같이 1년 또는 수개월전부터 예약하고 준비한다. 돌잔치를 준비하는 부모들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위생장갑 착용, 발열체크,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했다”면서 “헬스장·노래방 등은 영업을 재개하고, 유사한 결혼식장마저 운영되는데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소속 700여 유흥업소는 지난 5일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간판 점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시위를 지속할 계획인데,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일부 업소는 벌금 300만원을 내더라도 영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관계자는 “현재 번화가 주변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유흥업소 업주들간 방역지침을 잘 지키기로 약속하고 있다”며 “일부 업소에서는 워낙 힘들다 보니 거리두기 연장 시 강행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사한 업종간 방역지침이 차이를 보이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전국 일일 확진자 수도 여전히 500여명을 웃도는 등 현재의 방역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리두기 상·하향 지침 기준 등을 살펴보면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는 1.5단계 수도권 100명·호남 30명 이상, 2단계 300명 초과, 2.5단계 400-500명 이상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지침 연장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카페의 경우 음식을 조리할 수 없거나, 주로 커피만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을 한 것”이라며 “돌잔치는 현재 사적모임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흥업소는 집합금지다. 그러나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장씨측 혐의 부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재고 확인 좀” 편의점 업주 상대 보이스피싱 ‘주의’

구글 직원 사칭, 기프트 카드 핀 번호 가로채…기존 스미싱서 발전

지인을 사칭해 구글 기프트 카드 구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편의점 업주와 종업원을 속이는 진화한 수법까지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 핀 번호를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구글 기프트 카드는 모바일 유료 서비스 이용에 활용하는 선불 결제 수단으로 온·오프라인에서 5천원-50만원권까지 다양한 액수를 판매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편의점 종업원은 구글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핀 번호를 전송해줬다.

“기프트 카드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7차례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핀 번호를 보냈다.

구글 기프트 카드 편취 사기는 최근 워낙 자주 발생해 ‘고전적인 수법’으로 분류될 정도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거나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다량의 기프트 카드 구매를 부탁해 핀 번호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찰 등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다량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편의점 업주를 교육하고 있지만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져 사기 범행 시행이 쉽지 않자 편의점 업주와 종업원을 속이는 이번 사건과 같이 변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전통적인 수법 외 기프트 카드 핀 번호를 가로채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모바일 기프트 카드의 핀 번호는 노출되는 즉시 현금을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누군가 구매를 요구하거나 핀 번호 전송을 요구하면 대부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수 기자

설 열차 승차권 예매 ‘비대면 방식’

19-21일 온라인·전화접수…거리두기 좌석 제한

한국철도(코레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승차권을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이며, 지난해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으로 진행된다.

또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동반석은 1석만 판매한다.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전화접수는 편도3매)로 제한된다.

설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이다.

한국철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현장예매를 선호했던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1월1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설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김동수 기자

‘문구용 칼’로 차량털이

퍼뜩어!

○…문구용 칼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서행.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내부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데, A씨는 지난해 11월2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반복적으로 차량 침입 절도 범행을 한 혐의.

○…경찰은 범행 수법이 특이한 점을 토대로 A씨가 전국에서 40여 건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 /김동수 기자